

스위스

2003. 9

박영곤

(ygpark@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41,285 km²(한반도의 1/5배)
- 인 구: 7,258,500명(2002년말 기준)
- 기 후: 온난성 기후(여름: 13~24도, 겨울: -3~2도)
- 시 간 대: GMT보다 1시간 빠름

□ 행 정

- 공식국명: 스위스 연방(The Swiss Confederation/Switzerland)
- 수 도: 베른(Berne, 인구 12만명)

□ 정 치

- 정부형태: 연방공화제(26개의 칸톤) +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Pascal Couchepin 대통령(2003년 대통령직 수행)
- 의회형태: 양원제(칸톤회의 46명, 국민회의 200명)
- 주요정당: 사회민주당, 급진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스위스국민당, 스위스녹색당, 자유민주당, 자유당.
- 건국(독립)일 : 1291년 8월 1일 (3개 산악지역들이 최초로 스위스연맹동맹 결성)

□ 사회·문화

- 민 족: 켈트족, 게르만족
- 언 어: 독일어(64%), 불어(19%), 이탈리아어(8%), 레토로만어(1%)
- 종 교: 카톨릭(46%), 개신교(40%), 기타(14%)
- 국 경 일: 8월 1일
- 도 량 형: 미터법

- 통화: 스위스 프랑(Swiss Franc)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2월 19일
- 협정체결: 투자보장 협정(1971. 9), 항공운수 협정(1976. 11), 공업소유권 협정(1977. 12), 사증면제 협정(1979. 6), 이중과세방지 협정(1981. 4)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단위	1999	2000	2001	2002
인구	백만명	7.2	7.2	7.2	7.3
GDP(명목)	십억달러	259.3	239.9	245.5	267.2
1인당GDP(명목)	달러	36,209	33,277	33,911	36,705
실질GDP증가율	%	1.5	3.1	0.9	0.0
소비자물가상승률	%	0.8	1.6	1.0	0.6
산업생산증가율	%	3.5	8.4	-0.7	-5.1
수출	백만 달러	76,242	74,606	78,086	83,991
수입	백만 달러	75,449	75,839	79,030	95,061
경상수지(GDP대비)	%	11.7	13.2	9.1	9.6
환율 (스위스프랑)	달러대비	1.50	1.69	1.69	1.56

자료: DRI · WEFA. World Overview. June 2003.

2. 향후 경제전망

항목	단위	2003	2004	2005
경제성장률	%	-0.2	1.5	2.1
소비자물가상승률	%	0.8	1.3	1.5
산업생산증가율	%	0.8	2.4	3.5
경상수지(GDP대비)	%	9.5	9.8	9.8
환율(스위스프랑)	달러대 비	1.33	1.31	1.25

자료: DRI · WEFA. World Overview. June 2003.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수 출>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품목	1990	2000	2001
농산물 및 임산물	2,998	4,428	4,388
삼유, 의류, 신발	4,984	3,891	3,934
화학품	18,425	35,892	41,833
철강	7,537	10,892	10,453
기계, 전자	25,527	37,137	36,022
운송기	1,485	3,054	3,042
기구, 시계	13,330	20,516	21,641
합계	88,257	126,549	131,717

자료: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수 입>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품목	1990	2000	2001
농산물 및 임산물	8,095	9,925	9,936
삼유, 의류, 신발	8,806	8,905	8,993
화학품	10,624	21,899	26,256
철강	9,025	10,735	10,328
기계, 전자	19,794	31,583	29,583
운송기	10,230	14,903	14,163
기구, 시계	5,786	8,031	8,165
합계	96,611	128,615	130,052

자료: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나. 지역별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2001	2002
< 수 출 >		
EU	53,099	52,900
독일	19,870	19,002
프랑스	8,238	8,508
이탈리아	7,308	7,645
영국	5,083	4,779
오스트리아	2,961	3,097
미국	10,646	11,104
일본	3,564	3,530
중국	1,104	1,395
< 수 입 >		
EU	68,659	66,462
독일	28,297	27,858
이탈리아	8,815	9,144
프랑스	9,636	8,872
네덜란드	5,065	4,534
영국	5,416	4,305
미국	6,308	5,866
일본	2,245	1,785
중국	1,495	1,504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3.

다. 스위스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 스위스의 ODI와 FDI 규모(실행기준)

(단위: 백만 달러)

	1990-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해외직접투자(ODI)	8,512	16,152	17,732	18,767	33,275	42,650	16,320
외국인투자(FDI)	2,341	3,079	6,636	8,941	11,718	16,285	9,986

자료: United Nations.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 국별 및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국별					
EU	1,807	4,084	3,880	6,417	4,523
덴마크	7	14	19	-35	504
독일	1,058	1,978	1,873	2,000	367
프랑스	462	356	-271	484	421
이탈리아	-653	76	1,093	317	1,058
룩셈부르크	256	1,159	348	287	1,475
영국	-138	-111	-261	3,485	201
EFTA	0	1	0	2	18
미국	1,235	2,635	4,528	5,811	7,549
일본	-12	-225	-315	-1,007	38
산업별					
제조업	1,767	2,938	2,117	2,124	7,406
화학·플라스틱	765	1,628	2,089	240	1,468
금속·기계	-26	1,165	19	-262	4,693
전자·에너지·정밀기계	821	141	-38	1,526	69
기타·건설업	206	4	48	619	1,177
서비스업	1,312	3,698	6,824	9,266	9,873
교역	307	249	670	513	1,049
금융·지주회사	100	2,782	3,563	3,508	3,167
은행	617	384	1,554	125	1,570
보험	2	2	841	3,237	982
운송·통신	2	2	46	1,234	2,835
기타	288	282	150	650	271
합계	3,078	6,636	8,941	11,390	17,280

자료: Swiss National Bank, *Swiss Balance of Payments 2000*.

□ 국별 및 산업별 해외직접투자(O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국별					
EU	10,131	8,679	7,004	16,564	14,472
벨기에	395	-451	241	873	3,134
독일	2,127	2,846	613	3,677	-1,357
네덜란드	-156	1,896	692	1,098	2,446
영국	5,801	2,786	2,957	5,642	8,194
EFTA	44	125	-64	235	49
미국	2,729	5,299	2,225	9,684	19,259
일본	247	-140	86	449	223
산업별					
제조업	6,918	10,890	6,649	7,101	12,570
섬유·의류	-6	81	430	390	-34
화학·플라스틱	1,678	5,769	3,556	4,435	9,506
금속·기계	620	1,787	980	553	-368
전자·에너지·정밀기계	2,362	2,396	-614	1,110	1,315
기타·건설업	2,265	856	2,296	612	2,151
서비스업	9,234	6,842	12,118	28,850	28,746
교역	-3	356	1,639	1,999	-674
금융·지주회사	1,689	3,580	4,524	8,817	2,996
은행	446	1,238	-221	6,405	18,365
보험	6,146	919	5,541	6,608	7,714
운송·통신	761	147	592	2,346	133
기타	195	602	43	2,673	213
합계	16,152	17,732	18,767	35,951	41,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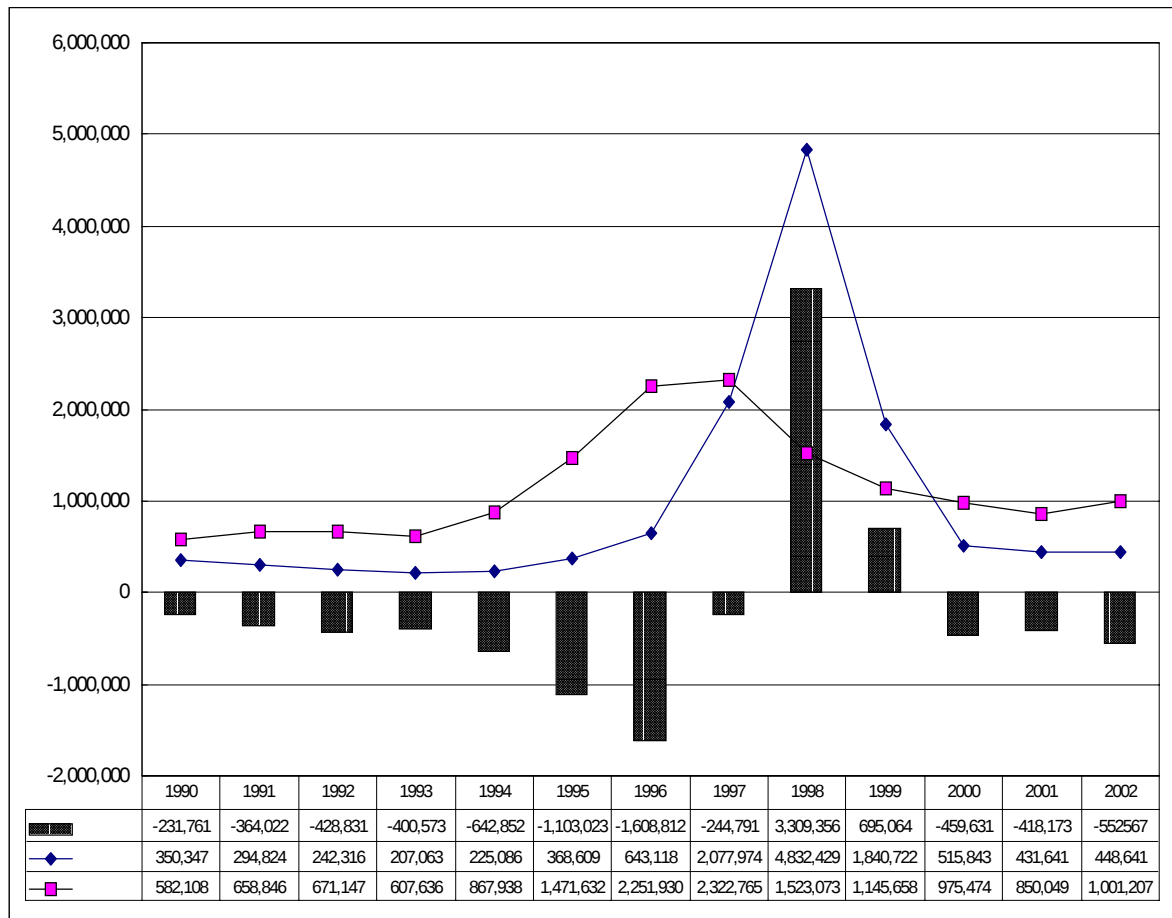
자료: Swiss National Bank, *Swiss Balance of Payments 2000*.

4. 한 · 스위스 경제관계

가. 교역

□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품목별 수출입 내역(HSK 2단위, 금액순)

<수 출>

(단위: 천 달러, %)

순 위	품목	2002		2003(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오조신 변장식용품, 주화	151,596	-2.3	79,961	69.6
2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 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22,834	26.8	77,906	18.3
3	선박과 수상구조물	32,656	-	65,184	99.6
4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61,023	-29.0	35,134	12.5
5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5,182	-45.6	9,103	25.9
6	플라스틱 및 그 제품	9,066	47.0	7,427	50.1
7	고무와 그 제품	8,819	28.8	6,620	31.7
8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 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018	-11.0	3,785	16.6
9	시계와 그 부분품	8,996	-13.8	3,000	-49.6
총수출		448,641	3.9	304,835	36.6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수 입>

(단위: 천 달러, %)

순 위	품목	2002		2003(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93,158	-37.1	277,033	389.8
2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33,433	25.0	188,348	52.6
3	광, 슬랙, 회	35,384	951.3	72,352	414.4
4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오조신 변장식용품, 주화	201,604	107.3	65,456	-26.7
5	의료용품	50,197	-27.5	41,857	39.1
6	시계와 그 부분품	55,415	33.5	39,201	32.7
7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7,833	12.5	38,510	27.0
8	유기화합품	67,067	-6.5	33,102	-16.1
9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35,818	13.3	20,837	-7.5
총수입		1,001,207	17.8	897,195	69.3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투자

□ 한국의 對스위스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신고수리기준)

2000		2001		2002		2003(1-6월)		누계 (1968~2003.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	0	1	138	2	22,085	0	0	11	46,84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2003.

□ 스위스의 對韓 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신고수리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1~9		총누계 (1962~2002.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76,390	10	140,325	19	24,726	14	45,894	4	27,456	157	961,445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2002. 9.

III. 경제현안

1. 스위스의 경제현안

가. 개요

□ 스위스 경제는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이 여타 회원국들에 비해 이미 높은 상황에도 달하였고 또한 인구증가율이 낮기 때문임.

- 스위스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1.5%의 경제성장으로 여타 4%대 유럽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평균 성장률인 2.0% 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스위스 경제는 2001년에는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등 기술적인 경기침체를 보인 바 있으며, 2002년에도 제로성장을 기록하였음.

- 스위스의 이러한 경기위축은 세계경제의 둔화와 스위스 프랑화의 강세 그리고 제조업과 여행업 및 금융서비스 등 주요산업분야에서의 경기부진이 주요인임.

□ 2003년에 들어서도 2002년 4/4분기 전년대비 -0.2%에서 2003년 1/4분기 -0.25%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4월 -36 포인트에서 7월 -35포인트로 소폭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노동시장도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실업률도 7월 3.6%를 기록하는 등 실업자수가 2001년 2월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음.

- 스위스의 KOF 경제연구소의 경기선행지수도 5월 -1.06에서 6월 -1.15로 하락하는 등 199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스위스 경제침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기계설비투자는 2001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 또한 최근 주택건설경기가 살아나고는 있으나 2003년에는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상대적으로 스위스 프랑화의 강세와 주요 무역파트너, 특히 독일의 경기침체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월 전년대비 1.8%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수입도 내수부진으로 4.1%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인플레이션은 2003년 1/4분기 동안 유가상승으로 인해 3월에는 1.3%까지 상승하였으나, 이라크 전쟁의 종료로 인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7월에는 0.3%로 하락하였음. 2003년 전체적으로는 0.5%를 2004년에는 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DRI-WEFA는 2003년에도 스위스 경제가 0.2% 성장에 머물 것이며, 2004년에는 경기회복으로 1.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무엇보다 향후 스위스 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스위스 경제는 GDP의 40%가 수출에 의존하는 등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서 특히 유로지역이 스위스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독일에 대한 수출이 전체 유로지역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독일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스위스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음.

나.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1) 스위스 프랑화의 강세

□ 스위스 프랑(franc)은 2001년 하반기부터 2003년초까지 초강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유럽지역에서의 경기불안과 세계경제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safe-haven' 통화인 스위스 프랑으로 몰렸기 때문임.
- 8월말 현재 스위스 프랑은 달러 대비 1.40 프랑까지 거래되었으며, 주요 거래대상지역인 유로지역의 유로화 대비로는 지난 3월초 3년반 이래 최고치였던 1.46 프랑에서 8월말 1.53 프랑으로 다소 하락하였음.
-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쟁이 종료되고 세계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임에 따라 safe-haven 효과가 없어지고 있어 차츰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스위스 프랑의 환율 추이>

	2001	2002	2003
대달러	1.69	1.56	1.35
대유로	1.51	1.47	1.52

주: 2003년 자료는 EIU 전망치.

자료: EIU.

2) 시장개방 부진

□ 스위스는 EU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시장자유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실행에 있어서는 부진

한 상황임.

- 현재 시장자유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은 통신시장이지만, 지난 2001년 11월초 연방법원에서는 Swisscom의 독점을 오히려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전기시장의 경우에도 스위스 연방의회가 전기시장 자유화에 대한 법안을 승인은 하였으나, 2002년 9월 투표결과 부결된 바 있음. 이에 스위스 연방정부는 새로운 시장자유화법을 신설하여 전기시장 개방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
- 이 외에도 스위스 연방정부는 가스 및 우편서비스 시장의 개방도 준비 중임. 연방정부는 동 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가격 카르텔 형성시에는 막중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마련하였음.

2. 한·스위스 경제현안

가. 개요

□ 스위스는 한국과 1962년 12월에 수교를 맺고 있으며, 북한과도 동시수교를 맺고 있는 등 등거리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관계와 기술협력 그리고 교역대상으로서 한국과의 관계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음.

□ 한국과 스위스간의 교역은 교역구조면에서 보면 상호보완적인 경쟁구조로 인해 199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히 증대해 오고 있음.

- 1990년 양국간 교역은 9억3천만 달러 상당이었으나, 1997년에는 44억 달러를, 1998년에는 6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다가, IMF 사태로 인한 한국의 경기침체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4억4,984만 달러 상당에 머무르고 있음.

- 한국의 對스위스 교역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IMF 사태 이후 금수출로 인해 1998년과 1999년 무역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2003년에도 7월말 현재까지 5억9,236만 달러 상당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핸드폰, TV 등 가전제품이며 이외에도 반도체, 타이어, 일반소비재가 주요 수출품목임.

○對스위스 수출은 고품질의 고가품이 대부분임. 이는 스위스가 산업구조

상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만 국내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스위스시장을 공략해 나가야 할 것임.

- 스위스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시계, 칼을 비롯한 정밀기계와 의약품, 화학제품 등임.

○현재 한국 수출제품에 사용되는 기계류 수입 대부분이 스위스로부터 수입되고 있을 정도로 스위스로부터의 정밀기계는 그 정밀성이나 품질이 뛰어남.

□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는 1968년부터 2003년 6월말 현재까지 총 11건에 4,684만만 달러 상당으로 매우 저조함.

- 이는 스위스가 고물가, 고인건비로 생산비용이 여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고용조건도 매우 까다로워 투자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임.

○그러나 스위스의 고도화된 첨단기술이나, 숙련노동력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제품에 대한 투자는 적합하다고 사료됨.

○또한 높은 인건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의약, 시계, 금융서비스 산업에서도 스위스의 높은 경쟁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스위스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는 대우자동차, 삼성물산, 상현, 한국통신,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항공 등이 있음.
- 현재 스위스 연방정부로부터의 특별한 외국인 투자인센티브는 없으나 일부 칸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세금감면, 공장부지 제공, 금융알선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스위스의 對韓투자는 1962년부터 2002년 9월말 현재까지 총 157건에 9억

6,144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한국의 투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스위스의 투자는 주로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전략과 한국의 높은 생산력과 기술력에 힘입어 스위스 기업들의 투자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나. 주요 통상현안

- 스위스는 자유무역주의 정책을 준수하고 있어 한국과의 교역에서 특별한 통상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 대한 특별한 무역규제도 없음.

- 다만, 스위스는 기술규격 인증 및 표준제도와 라벨링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한 것과 환경관련 규제가 엄격한 것이 교역에 있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으로서는 스위스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양국간의 균형적인 교역을 위해 스위스 정부와의 협상과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 특히, 한국은 스위스로부터 개도국입장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누렸으나 1997년 스위스가 제도개편을 통해 동유럽국가,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한국에 대해 1998년 3월부터는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무역흑자 달성이 더욱 힘들게 됨.

- 그러나 양국간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인 경쟁구조를 지니고 있어 향후에도 교역량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스위스는 한국을 아시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기술협력 및 교역증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의 입장에서라도 스위스가 시계부문에서는 세계 1위, 그래픽 인쇄기계, 직물기계부문에서는 세계 2위, 공작기계 및 정밀계량장치부문에서는 세계 3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對日 교역에서의 고질적인 문제인 동 부문에서의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스위스도 민간소비가 전체 GDP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내수규모는 크다고 할 수 있음. 인구는 725만명 정도로 시장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나, 1인당 GDP는 3만6천 달러를 상회하는 등 구매력은 매우 높음.